



준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evala@buddhania.com



北식량난 외면하는 정부와 언론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 세계식량계획(WFP)과 JTS 등 구호단체들은 연일 북한 긴급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 성직자 268명은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용주의'와 '상호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북 식량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9월 3일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김정일 위원장 건강악화 등 북체제 이상 징후로 정부 지원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 느낌이다.

식량지원에 앞장섰던 국제사회도 북한인권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과 EU는 9월 23일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해 인권문제와 식량지원을 다룰 예정이다. 일부 단체는 북한인권문제 개선과 식량지원을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이상과 정부대응방안을 보도할 뿐, 정작 북한 체제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 <주간조선> 등은 심지어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 다수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계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식량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조의 기사를 신기하게 했다. 또한 인권문제 개선이 없는 한 식량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북한의 인권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살 권리 아닐까? 이념과 생명은 별개다. 생명만큼 소중한 인권은 없다. 이념과 인권문제로 식량지원이 표류하는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통일 후 민족화합을 위해서라도 식량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한다. 어떤 이들은 "경제난으로 먹고살기 힘든 시국에 왜 북한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나?"고 반문한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운 이를 도와야 한다.

<중앙이화경> '선취품'에 부처님 "출가자처럼 전문적인 수행이 어렵다면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다"고 설했다.

종교편향과 경제난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의 모습이 그림다. 정부 당국자들과 언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생명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n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43)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조문화재 화재경보 미비”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 조사

송례문 소실 후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목조문화재 70%는 여전히 화재경보 등 기초 방재시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9월 17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을 분석해 "국보·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22건 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조차 없다"고 발표했다.

화재경보조차 갖추지 못한 목조문화재에는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290호 통도사 금강계단,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등 국보급 문화재가 9건이나 해당됐다. 특히 보물 제1307호 능가사 대웅전 등은 소화전 설비가 미비했고, 보물 제827호 김제 설산사 대장전 등은 소화기만 1개 비치됐을 뿐 화재경보와 CCTV도 없어 실효성 있는 방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현 의원은 "국보나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

원은 "감사원 의 문화재청과 사 결 과 2007년 중요 목조문화재 소화 시설 설치 예산 30억중 10억만 집행한 후, 지자체에서 신청한 6건의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던 결과 밝혀졌다"면서, "배정된 예산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문화재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지자체가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6건 중 5건이 국보·보물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행보도 눈에 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9월 10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도내 목조문화재 153곳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3년간 65억원을 투입해 방재시스



템을 구축할 목조문화재는 도지정 문화재 125곳, 전통사찰 28곳이다. 각 목조문화재마다 옥외소화전 20기, 화재감지기 470개, 폐쇄회로TV 118대가 설치된다.

◇화재경보 없는 문화재 87건 중 국보 9건

국보 제15호 봉정사극락전/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국보제50호 도갑사해탈문/ 국보 제51호객사문/ 국보 제304호 진남관/ 국보 제305호 세병관/ 국보 제290호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소화전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문화재

보물 제177호 서울 사직단정문/ 보물 제1307호 능가사대웅전/ 보물 제475호 안동소호현/ 보물 제553호 예안이씨충효당/ 보물 제521호 송월당/ 보물 제836호 대적사극락전/ 보물 제457호 예천관씨증가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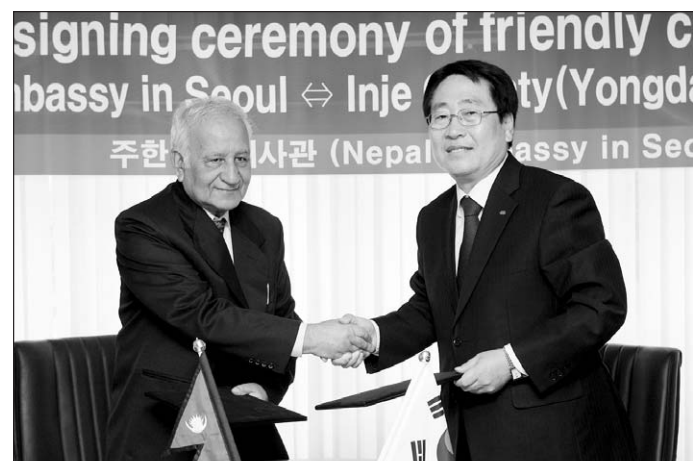
◇소화기가 1개만 설치된 문화재

보물 제827호 금산사대장전/ 보물 제832호 성철사나한전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백담사 인근 '네팔 문화촌' 조성

설악산 불교문화마을 조성으로 불심용성 기대



9월 17일 '네팔문화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박삼래 인제군수(오른쪽)와 커릴 프라사드 주한네팔대사.

강원도 인제군은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네팔대사관에서 '네팔문화촌 투자·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불교문화마을 조성에 적극 나선다. 조인식에는 박삼래 인제군수와 커릴 프라사드 코이랄라 주한네팔대사, 한의동 군의장, 용대리 이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 인제군 용대리 백담교·백담주차장 777m 구간에 네팔문화촌을 조성할 예정으로 네팔문화촌에는 석가모니 탄생사원 등 다양한 불교문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인제군은 "봉정암, 백담사 등 기존사찰들과 연계해 국내 최대 불교 순례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백담사가 위치한 강원

노덕현 기자

정치권 불심잡기 경쟁

여야 앓다튀 불자회 결성...한나라당 부산 불심잡기 총력

추석 연휴를 전후해 불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예년과 달리 조계종 총무원장 뿐 아니라 부장스님들에게도 추석선물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故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의 저서 <고풍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등을 읽었고, 불교계 정서를 고려해 경찰 방문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기간 시·도당에 종교관련 특별지침을 내렸던 한나라당은 9월 17일 강석호, 이계진, 조문환, 주호영 등 당내 불자 의원 17명이 모여 '한나라당 불자회'를 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해봉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불교발전과 불교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자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도 최문순 의원을 회장으로 이번 연수회는 불교청소년 지도사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다.

노덕현 기자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연등회'는 9월 말경 조계사에서 창립 대회 불행 후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추석이후 부산지역 불심잡기에 집중할 모습이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은 9월 26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정어 스님(범어사 주지)을 비롯한 부산지역 불교계 인사 20여명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허태열 최고위원과 안경률 사무총장, 김정훈 시장위원장, 허원철, 현기환, 박민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9월 8일 김정훈 시장위원장은 안성구 부산시당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범어사와 부산 불교연합회 등을 방문해 불교계 여론을 경청했다.

한편 서울 봉은사와 화계사, 불광사 등 일부 사찰은 청와대 추석선물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해외공관 기도회 등 종교편향 중지하라”

미주승가회, 국제단체와 연대·국제기구 탄원등 대응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 포고하는 스님들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미주승가회'(공동회장 원영·현철·도현)는 9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작금 본국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일부 공직자에 의해 일어난 '헌법파괴,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주승가회는 "계속된 종교편향 행위는 세계 역사속에서 많은 불행한 전쟁을 야기시켜 왔고 해외 등포

간에도 종교로 인한 분열을 가져왔다"면서, "미주한인 동포사회의 공관이나 한인회 주회 행사 등에서 관행처럼 행하여온 특정종교만의 기도 등 종교편향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주승가회는 "종교편향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주승가회는 종교차별법에 호소하고 세계불교도우의회 등 국제 정의구현 단체와 연대, UN 등 국제기구에 탄원하는 등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 창립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이 설립된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판)은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식을 갖는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법인 이사장 지판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창립을 선포하고, 법인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정각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김성우 기자

포교원, 청소년지도자 연수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훈)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포교원은 9월 27일~28일 속히산 유스타운에서 '제1회 불교청소년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불교청소년 지도사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성영상과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로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월간경향,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제1회 선운문화제 | 1ST SEONUN CULTURAL FESTIVAL

초대의 글

일과 꽃이 만나지 못해 상사하라고도 불리우는 꽃무릇이 선운산 골짜기마다 피어납니다.

선운사에서 가을의 결실에 감사드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라는 주제로

제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선운문화제는 선운사의 장건 역사와 함께하는

검단스님과 지역 주민들의 1500년이 넘는

은혜 깊은 소금이야기와 희망과 상생을 노래하는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범만

주요 행사

◆보은염 이운식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깊은 소금이야기) 9월 27일 오후 1시

◆영산대제 9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대웅전 앞 특설무대

◆전통다례시연 (규방다례) 9월 27일 오후 5시 ▷ 장소: 특설무대

◆학술세미나 (선운사의 역사와 인물) 9월 28일 오후 2시 ▷ 장소: 선운사 세미나실

◆박물관 특별전시 (만다라전) 9월 23일부터 ▷ 장소: 선운사 박물관

◆고창 특산물 직거래 장터 9월 27일 ~ 28일

◆산사음악회 9월 27일 오후 7 ~ 8시 30분 ▷ 장소: 특설무대



가르침을 노래하는 범승스님, 영미의 후손 시나이(SISAY), 약력찬 연주단 일수, 신재대 흥판국악그룹 헤이아, 노래하는 시인 정대준·박은옥